

지방자치·종합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7080 총장축제, 세계 10대 축제로”

“2011년 신묘년은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수도 동구’의 기쁨을 확고히 다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구간경제조정을 비롯해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구정의 앞날도 쉽지않은 양을 맞이하지만, 위기의 그늘 한 쪽에는 언제나 같은 크기의 기회가 숨어 있다”며 “2011년에는 창조적 문화 예술도시, 생활경제도시, 생태환경도시, 명품교육도시, 건강복지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10개 구역 가운데 토지구획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보류된 지원 3, 동명 2구역의 추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내 18개 학교 1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지원과 함께 11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서석영어센터 지원과 동

구도심 상권 활성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유 청장은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대해 “문화전당권·지산유원지권·의재로권 등 3대 권역을 선정해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톨릭센터 등을 리모델링하는 도심 문화거점 재생사업,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을 포괄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 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된 ‘추석의 7080 총장축제’를 내실화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는 2014년에는 세계 10대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며 “총장축제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과 예술의 거리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유무형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청장은 전통시장과 거리별 특화사업 등 쇠락하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유 청장은 “총장로는 명품 쇼핑공간, 구시청 사거리는 다목적 복합 음식문화 공간, 서석로·황금길·불로길 일원에는 호남 최대의 웨딩·패션 특화거리, 대인시장은 아시아 문화예술 특화지구,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조성·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청장은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청장은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개 구역 중 계획 5-2, 계획 7, 학동 3구역 등 3곳이

저출산·고령화 극복

구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급이 방문 관리와 건강서비스를 연계한 응급안전망 시스템을 발전시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민선 5기 출범 후 마련한 사업과 시책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도 동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구정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작년 GDP 1조달러 돌파...1인당 국민소득 2만500달러

경제규모 세계 13~14위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1조달러(1100조원) 고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경제 규모가 세계 13~14위로 한 단계 정도 올라섰을 가능성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국민계정을 잠정 분석한 결과 지난해 6%가 넘는 실질 성장을 한 데 힘입어 GDP가 이 정도 규모까지 증



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질 성장률 6.1%, 달러당 연평균 환율 1156.3원을 적용하면 명목 기준 GDP가 원화로

1140조~1150조원, 달러화로 1조10억~1조20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2009년 GDP가 1063조원, 832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각각 77조~87조원, 1700억달러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2008년 1026조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2년 만에 1100조원을 넘어섰다. 달러화 기준으로도 2007년 1조49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1조달러 고지를 밟게 됐다.

GDP 규모로 평가하는 경제력 순위는 2009년 세계 15위였는데 지난해 1조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호주, 멕시코와 세계 13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500달러로 추정됐다. 2007년 2만1천695달러 이후 3년 만에 2만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1만9296달러, 2009년 1만7175달러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예산집행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감사원, 상습도박 공무원 수십명 적발

후 대통령 올 첫 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연초부터 예산 집행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매우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률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한 뒤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억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현 정부 들어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 국무위원이 모범적으로 앞장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감사원이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공무원 수십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최근 감찰에서 차관보급을 포함한 수십 명을 적발했고 이 중에는 60차례 이상 카지노에 출입한 공무원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착안, 출입 명단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해 근무 시간에 카지노에 자주 드나드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공무원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일부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박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연금제 1호 가입자 탄생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가 시행된 가운데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사는 김화숙(여·66)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가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전화 1577-7770 또는 홈페이지(www.fplove.or.kr) /연합뉴스

2010년산 공공비축미 1등급 4만7260원

전남도 40kg 포대당 2260원 농가 추가지급

전남도는 201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1등급 기준 4만7260원으로 결정돼 40kg 포대당 2260원을 농가에 추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지난해 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 13만7416원(정곡 80kg)을 조곡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이후 최종가격이 결정되면 추가인상분을 농가에 지급한다.

2010년 국내 공공비축미는 현재 10만3000t 매입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태풍·집중호우, 도박·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국내 특등급 비율이 23.5%로 전년보다 20%p 낮지만 1등급 비율은 70%로 전년보다 15%p 높아졌다.

전남도는 추가금 지급을 미곡 출하 농가에 안내하고 추가지급금은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별 통장에 일괄 지

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곡물가격이 오름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통업체에는 제값받고 팔 것을 당부하고 농가에게는 제값을 주고 사거나 수탁(受託)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산지 쌀 값은 지난해 25일 현재 80kg 기준으로 13만8564원, 소비자가는 17만3061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해 11월 반등 이후 상승세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북대화 통해 6자회담 재개조건 제시”

정부 5자 협의 진행...보즈워스 방한 6자재개 협의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북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일·중·러를 상대로 6자회담 전제조건을 확정짓기 위한 ‘5자 협의’를 긴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날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데 5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5자협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조건이 만들어지면 이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복귀를 의제로 올리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리”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외교부 업무보고

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확약 등을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내용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일정한

도 진전되고 북한이 회담재개 전제조건을 충족한 이후 6자회담 틀내의 북미대화와 북일대화 등의 양자 접촉을 거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오후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수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abalone dishes and text describing the restaurant's location and services. Contact info: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restaurant. Features a menu with prices for lunch and dinner, and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 062-671-1199.